

백만 어린이 묵주기도 - 2019
세계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2019년 8월 15일 로마
성모승천대축일

벗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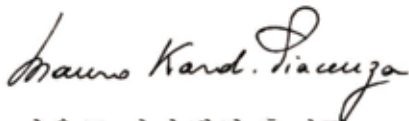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교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전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하셨습니다.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 세상 선교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주제 하에 선교의 목적은 다양한 사목적 영적 계획을 통하여 선교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를 개인적인 선교사로 서 부르신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전교의 달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선교활동은 여전히 가톨릭교회에 가장 큰 도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반드시 맨 앞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항구하게 선교의 상태로 있어야 하며... 특별 전교의 달이 열정적이고 보람된 은총의 기회로 드러나기를, 그리고 모든 선교 활동의 성과 모든 기도와 계획들을 고무시켜 주기를 빕니다.”

교황님의 소망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인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전교 주제에 걸맞게 특별히 선교사들과 새로운 선교 성소를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선교의 주보성인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자서전 ‘영혼의 이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만일 교회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졌다면, 모든 기관 중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귀한 것이 그에게는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사랑이 꺼질 지경에 이르면 사도들은 복음을 더는 전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며 들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함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심장 속에서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적인 기도 계획이 가진 심원한 지향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심장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고 선교적 사랑을 가득 채워, 어린이들의 기도가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의 선교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위대한 사명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교사, 교리교사, 교육자, 부모와 조부모-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2019년 10월 18일 오전 9시 -또는 적당한 다른 시간에- 어린이들이 전 세계 수천 개의 어린이 모임과 하나되어 묵주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 계획이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대로 “영원한 사명”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살아있는 묵주기도 모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행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과 매달 묵주기도의 신비 20단을 나누어 바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린이는 특정한 신비를 매일 한 단씩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 어린이에게 특정한 신비가 기록된 작은 카드를 주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은 전체로써 매일 완전한 묵주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월 말에 어린이들은 기도할 새 신비를 부여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묵주기도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힘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교회의 사명을 지탱하고 세계에 평화와 일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ACN 국제 재단장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ACN 국제 지도신부